

아로마 오일의 향 비듬 효과

박 은 하 *

중앙대학교 향장미용학 전공

아로마테라피는 꽃과 잎, 열매나 씨앗 또는 뿌리에서 추출해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 향기 요법으로 현대 의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19세기 말 현대 의학과 합성 화학에 밀려 아로마테라피는 치료의 수단이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로마테라피가 대체 요법으로 다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이유는 아로마테라피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이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감을 치유하는데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효능 및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이는 제품 개발로 까지 이어지는 등 아로마 오일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대 의학과 합성 화학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대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요법으로 아로마테라피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비듬 치료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듬 샴푸의 향균 성분인 징크피리치온(Zincpyrithione)이 물고기 척추 기형을 일으키는 실험이 1998년 일본에서 보고 된 바 있어 이를 대신할 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향 비듬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아로마 오일은 천연 물질로서 그 피해가 적으며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비듬 증상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로마 오일이 실제 비듬균에 대해 항균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먼저 비듬 치료에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아로마 오일 중 패츨리 오일, 로즈마리 오일, 라벤더 오일,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여 비듬균 *Malassezia furfur* KCTC 7744에 대한 항균력을 MIC(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test를 실시하여 실제 비듬균의 성장이 억제되는 아로마 오일의 최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티트리 오일(0.125%)이 가장 우수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으며 라벤더 오일(0.25%)>로즈마리 오일(0.5%)> 패츨리 오일(1%이상)의 순서로 항균력 측정 결과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실험에 사용된 4가지 오일 중 가장 우수한 항균력을 가진 티트리 오일의 화학 성분을 GS-MS(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티트리 오일의 화학 성분은 저비점(MW=136)성분이 약 80%, 고비점 MW=204)성분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Alcohol계의 성분이 약 40%로 가장 많았으며, Cyclic hydrocarbon계의 성분이 약30%, Ester계, Naphthalene유도체계, Caryophyllene계 등이 각각 10%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티트리 오일을 비듬 두피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실제 비듬 증상이 완화되는지에 대해 임상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임상 대상자가 느끼는 향비듬 효과를 각질, 가려움증, 통증, 염증 그리고 피지 정도의 차이로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티트리 오일 마사지가 각질, 가려움증, 통증, 염증, 피지 등의 비듬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Corresponding Author: eunha21c@hotmail.com

이러한 비듬의 증상 중에서는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각질이 감소되는 효과를 느끼는 것으로 18명의 임상 대상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피부 타입 별로 나누어 보면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각질 증상이, 중·건성 그리고 복합성의 피부 타입에서는 가려움증이 가장 많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비듬 치료 경험 유·무에 따른 이번 티트리 오일 마사지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가려움증이 덜해졌다고 답을 했으며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이 평균값이 좀 더 큰 차이를 보여 기존 비듬 치료에 대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티트리 오일 마사지가 좀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회 마사지 시술을 하면서 티트리 오일 마사지의 효과를 느끼기 시작한 때를 묻는 질문에는 55.5%가 3회에서 4회 시술 후에 효과를 느끼는 것으로 대답했다.

임상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 티트리 오일 마사지가 비듬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를 가지며 2일의 간격을 두고 시술할 경우 3회에서 4회 시술 후 효과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듬의 증상 중에서는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특히 비듬 치료 경험이 없는 중·건성 피부 타입의 대상자의 가려움증 완화에 가장 효과를 갖는 것을 제한적으로 알 수 있었다.